



천주교  
한인성당

# 주보

KOREAN CATHOLIC CHURCH OF HAWAII  
 마노아: 2949 Kahawai st., Honolulu, HI 96822  
 솔렉: 3300 Ala Lualani st., Honolulu, HI 96818

## 연중 제18주일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가해) 2014년 8월 3일  
주보 제1715호

### 오늘의 말씀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39)

### 오늘의 미사

제1독서 이사야 55,1-3

####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로마서 8,35.37-39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마태오 14,13-21

####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 생활 속의 복음

### 만남과 나눔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잊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다소 내용이 애매하지만 어쨌든 너와 나의 만남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기를 바라는 사랑을 노래하기에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광주를 채울 정도로 남았다는 이야기는 '나눔'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 교 교우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주님처럼 나눌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살 수 있다는 예화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인용됩니다.

물론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 '나눔'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님께서 '나눔'의 기적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만남'의 소중함을 더욱더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많은 군중이 모이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시는데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변명합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나눌 수 없는 이유'의 보편적인 세 가지 변명입니다. 그것은 '외딴 곳'이라는 공간적 변명과 '시간이 늦었다'는 시간적 변명과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라는 소유적 변명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변명은 오늘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그것이 불가능함을 변명하는 우리들의 입에서도 똑같이 흘러나옵니다. "난 시간이 없어", "우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구", "나누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시간적·공간적·소유적 변명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주님은 '나눔'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남'의 절대성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주님은 오천 명의 군중을 하나의 군중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측은한 마음'으로 보셨으며 따라서 그들과의 만남을 절대적인 만남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그러나 그 나눔이 참사랑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나눔'의 행위보다 먼저 '만남'의 행위에 더 운명적인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나와 주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과 나의 만남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바랄 수는 없지만 주님과 나는 함께 영원을 태우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해 너를 사랑해'라는 노래말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출처: 최인호 베드로(서울주보 1999.8.1)

### 오병이어의 기적





### 신나고 임나는 신앙

## (12) 과학은 창조주 하느님을 부정하는가?

종교와 과학 양자택일 강요하는 어리석음 피해야

(지난 주에서 이어집니다)

### ■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사도신경에서는 '천주'(하느님), '전능하신 성부'에 대한 신앙고백에 이어 '천지의 창조주'(크레아토렘 켈리 에트 테래: Creatorem caeli et terrae)에 대한 고백이 뒤따른다. 여기서도 동사는 크레도(Credo)다.

여기서 '크레아토렘'은 창조주를 뜻하는 '크레아토르'(Creator)의 목적격 변화형이다. 그러니까 이는 바로 앞의 '전능하신 성부'의 동격으로서 "그분이 누구신고 하니,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의미인 셈이다. '켈리 에트 테래'는 '하늘과 땅'을 뜻하는데, 여기서 '하늘'은 '천상계' 또는 '초월계'를 가리키고,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를 가리킨다.

이는 구약성경 창세기의 맨 첫 구절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세 1,1)를 근거로 한 신앙고백이다. 이 구절로 인해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하느님을 '천지의 창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주'로 고백한다.

사실 이 '창조주 신앙'은 그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며 나의 문제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가.

"우리 생명의 기원은 어디에 있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이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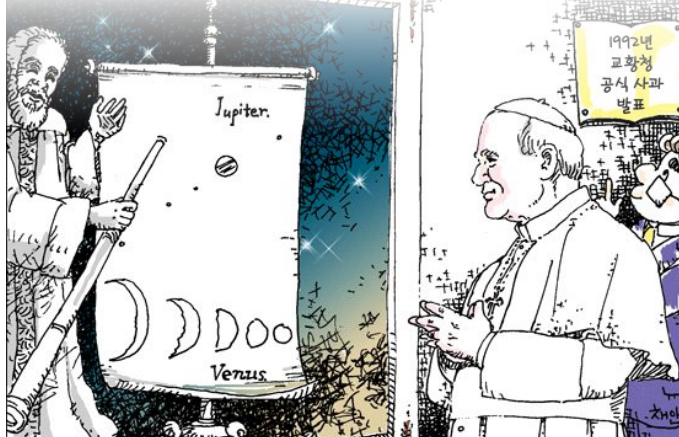
이러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창조주 신앙은 그 대답을 직접·간접으로 제시한다.

### ■ 약간의 과학과 더 많은 과학

그런데, 창조주 신앙은 오늘날과 같은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유효한가? 사실 사람들은 진화론이 부상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창조주 신앙이 후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이는 1916년과 1997년에 이루어진 동일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997년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에 실린 미국 조지아대 법대 에드워드 라슨 교수와 래리 위덤의 미국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40%가 신의 존재와 내세를 믿는다고 응답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차동엽 신부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해설 (평화신문 2013.3.24)



### 영성 안의 삶

## 세상에서 가장 고된 수도생활, 결혼

부부싸움을 삼시 세끼 밥 먹듯이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싸우는 와중에도 부부는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지에 다녀오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부인이 주도한 여행이었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먼 이국땅에서도 부부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너랑 산다.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야!"

"너만 그런 줄 아니? 나도 그래, 이 시베리아허스키야!"

긴 여정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부부싸움을 하다보니 남편은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부인에게 장의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을 이곳에 묻으면 3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에 묻는다면 비행기 값 등 이런저런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한국에 묻겠습니다."

남편 사랑이 지극한가보다 하고 다들 칭찬하는 가운데 부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한국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렀습니다. 헌데 장지에 간 그 부인은 인부들에게 귀엣말을 하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절친한 벗이 물었지요.

"생전에 원수처럼 지냈으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묻지 그랬니? 네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부들한테 돈은 왜 또 준 거야?"

부인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예루살렘에 묻었다가 만에 하나 부활하더라도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남편이 혹시 살아나서 관 뚜껑 열고 나올까 봐 뒤집어서 물어달라고 돈을 준 거야."



같은 주제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가던 여인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데 죽은 이의 아내인 듯한 여인이 덩치가 크고 사나워 보이는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상여를 따르고 또 그 뒤를 수많은 여인들이 줄지어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 여인이 궁금해서 물었지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렇게 많은 여자들이 따르는 건가요? 또 웬 개인가요?"

"개는 우리 남편을 물어 죽인 놈이오."

"아 그래요? 그 개 나 좀 빌려주세요?"

"내 뒤의 여자들이 다 개 빌려달라는 사람들이니 맨 뒤에 줄을 서세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홍성남 신부님 "화나면 화내고 힘들 땀 쉬어" 중에서



### 중은 글 좋은 생각



#### 눈물의 소원

나를 당신 앞에서 드러내소서.  
나의 거짓과 위선, 게으름과 안일함,  
욕심과 교만을 다 드러내소서.  
그러므로 당신 앞에서  
노란 병아리처럼 울며 떨게 하소서.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당신을  
속이기 위해 나를 감추는 일뿐이었습니다.  
내게 몇 방울의 눈물이 있다면,  
한 방울은 나를 위하여,  
한 방울은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 한 방울은 그 많은 사랑의 기회를 주고  
내가 깨닫기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흘리게 하소서.  
그래도 한 방울이 남아 있다면 누군가의 눈물로  
이것으로 대신하게 하소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로 나를 씻어 엄마 품의 아이처럼  
순결하게 당신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 정용철 《마음이 쉬는 의자》 -

가면 '어떠냐'고 권유하자 관순이가 눈물을 펄펄 흘렸어요.”  
관순이가 “선생님, 너무 서운해요. 제 주변에서도 다들 대학  
가지 말고 산업체로 가라는데 선생님마저 저한테 그러시면  
제가 누굴 믿고 공부를 해요.”하고 말을 해 두 사람은 상담실  
에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김 선생은 “사실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가라는 얘기였는데 그 말이 관순이에게는  
그렇게 섭섭하게 들렸나보다”며 “골든벨을 울리는 순간 그  
때 일이 생각나 너무 눈물이 났다”고 털어 놓았다.  
한편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지양에게는 각계에서 격려금  
과 함께 네티즌들의 격려글이 잇따르고 있다.  
서산장학재단(이사장 成完鍾 대야그룹 회장)은 7일 밤 방송  
된 KBS-1TV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퀴즈 50문제를 모  
두 풀어 골든벨을 울린 지관순 양(18· 문산여고 3)에게 대  
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골든벨 타종에 성공한 학생에게는 프로그램 협찬사인 한 카  
드회사가 대학입학등록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 양은 4년간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친 뒤 스스로  
돈을 벌어가며 중·고교를 다녀야 했던 한 시골 여고생은 이  
제 대학 학비 걱정없이 대학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됐다.



### 청소년프락

#### 골든벨 울린 시골 여고생



드레퓔스 사건에 관한 문제  
정답은 아직 최종적으로 맞  
추지 못한 상황. 그러나 지  
관순 양(18. 문산여고 3)은  
정답을 확신한듯 벌써 눈가  
에서 굵은 눈물 방울을 흘  
리고 있었다. 다른 카메라로 잡은 담임교사인 김진희(33·  
여) 씨의 얼굴도 이미 붉게 상기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난 3월 KBS-1TV '도전 골든벨' 50번 마지막 문제가 나온  
순간이었다. 그 동안 전국 248개 고교에서 대회 100명씩, 총  
2만 4천80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지만 골든벨을 울린  
학생은 43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관문.  
시골 여고생과 담임선생의 눈물의 의미,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울의 명문고 학생들도 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골든  
벨을 울린 지관순 양. 그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도 제때 다니지 못 했을 정도다. 지 양은 집안 사정 때문에 검  
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중학교 입학 이후엔 오리  
사육 우유배달 등을 통해 스스로 학비를 조달해야 했다.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해 문산여중에 입학했지  
만 기초가 부족해 전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후  
수업에 충실하고 방과 후 학교 독서실에 남아 밤늦도록 책과  
씨름한 끝에 중학교 3학년 때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다. 고교  
진학 이후 아침엔 학교 근로장 학생으로, 방과 후엔 초등학  
생 과외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검정고시 진학에 병환 중인 부모 모시며 주경야독, 여기에다  
지 양의 아버지는 오랜 병환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고,  
어머니 역시 교통사고를 당해 한 손을 쓰지 못 하는 장애인  
이기 때문에 지양이 직접 생계를 꾸려 나갔다.  
지 양이 이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  
어려운 골든벨을 울릴 수 있었던 것은 늘 책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책 살 돈이 없어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고 동네에  
서 버리는 책도 주워 독서량을 늘렸다고 한다. 청소년기에  
독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관순이는 잘 보여 줬다.  
바로 담임선생은 이같은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뤄낸 골든벨  
이기에 함께 눈물을 흘렸고 관순이가 골든벨을 울린 순간 학  
교 전체가 감격의 눈물 바다를 이뤘다고 한다.  
김진희 선생은 이날 눈물을 흘린데 대해 노컷뉴스와의 인터  
뷰에서 그 이유를 밝혔다. “관순이와 언젠가 진학상담을 하  
면서 ‘대학 학자금이 없으니 산업체에서 돈을 벌어서 대학에

<b>옥 치과</b>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육선남 안드레아 / 946-2875, 955-9709	<b>동양관광여행사</b>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관광/호텔예약 944-3949/orientour1988@yahoo.com	<b>프로디자인</b> 모든 인쇄, 간판 특수제작 하 마키엘 / 488-7777	<b>김남훈(베드로) CPA</b>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b>옥돌사우나</b> 하와이에서 제일 좋은 사우나 589-1800 / 1215 Kona St., Hon.	<b>초원한의원</b> 1411 S. King St., #204(하와이여행사옆) 원장 전 에스더 / 383-6222	<b>최 니콜 부동산</b> 732-5004, (c)225-5566 www.choihawaii.com	<b>마우나케아 힐링센터</b> 한방침술/향노화/신체해독/여성전문 한방클리닉 1451 S. King st./941-7799/354-3775
<b>~ 광고신청 ~</b> 사무실 / 988-9678 kccmanoa@hotmail.com	<b>~ 광고신청 ~</b> 사무실 / 988-9678 kccmanoa@hotmail.com	<b>주보 공지사항</b> 사무실 / 988-9678 kccmanoa@hotmail.com	<b>주보 관련 글/의견/기도</b> 김용태 요셉 / 294-5150 kccjubo@gmail.com

함께 나누고픈 좋은 글이나 주보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kccjubo@gmail.com 김용태 요셉(294-5150)